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장애인선교주일** :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선교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 : 양재민 씨와 안보혜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5일(토) 오후 2시 농심 본사 농심관 지하1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앙실천** : 4월 22일(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정해 실천해보세요.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행 4:5-12 / 시 23	2부	마 12:15~21
예배	요일 3:16-24 / 요10:11-18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주은경 박미연 이수자 박기영 이성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최희영 오미경 임주빈 김정민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 3주 】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의 빛으로 꽃 피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사회 곳곳에서 아픔과 고통을 넘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어두움과 차가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환하고 따스하게 밝히는 불꽃으로 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55년 전, 부정과 부패에 찌든 정권에 맞서 민주와 자유를 부르짖던 그 날의 합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날의 큰 회생을 잊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히12:2,3 ..... 인도자
- ♣ 교 독 문 ..... 41. 시편97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대표기도 ..... 김인걸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363. 내가 깊은 곳에서 ..... 다 함께
- ♣ 성경봉독 ..... I. 행3:12-19 요일3:1-7 눅24:36b-48 ..... 박민선 선생  
 II. 신15:12-18 ..... 이형숙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 찬 양 ..... 하나님의 생각은 ..... 찬양대
- 말 씬 ..... I. 믿는 부활 사는 부활 ..... 신진식전도사  
 II. 사회적 모성 .....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강영림 김성한 조영순 김세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기영 박시내 박용진 김용원  
 박윤숙 박종철 임옥기 백묘현 백성래 서정순 심상숙 안세진 오보영 손규현  
 윤미경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예서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은애 이자영 이한림 이명희 임호성  
 전인섭 정선희 정원석 김현영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주은경 차혜심 노미향 최다미 최철수 광권희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홍예선

### 감사헌금

강순배 권정자 김진중 김태정 김형욱 김소영 노 용 정우선 박숙미 이광섭  
 김수연 이범석 류정욱 이은혜 이정은 임형욱 홍성식 이유리 무명9

###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김재영 손규현 이지안 조현권

### 녹색꿈헌금

김문주 김주현 이자애 임형욱 무명3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장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심	서원금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박정숙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안정숙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심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광권희	윤수진	김윤수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송양진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정현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광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		

■ 마음으로 읽는 글

##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딱 좋아하는 날씨가

선선한 바람이 우리 추억까지

휩쓸고 가지만

괜찮다

딱 맘에 드는 하루다

자꾸 떠오르는 얼굴에 가슴이

떡떡하지만

괜찮다

딱 간이 맞는 생선구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입 먹어보니

결국 눈물이 짜게 흐르지만

- 정지아

「사월의 편지」에 실린 시, <어느 날> 중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숨진 고(故) 정지아 학생이  
생전에 쓴 글을 모아 어머니가 책으로 엮었습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품을 넓게 가지고 사십시오. 함께 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주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다함께:	아멘. 나 자신과 우리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좁은 사람이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넓은 품의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많은 것을 내어주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함께함이 마음 편안한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선교회 / 각 선교회별 모임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정민 장로	박재란 선생 이현순 집사

4	영접위원	윤석철 이국노 문홍일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헌금위원	하현철 박성실

##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 정신은 신비로운 요소이다. 공기처럼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에 모든 형식과 그릇에 잘 들어맞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정신을 완전히 억누르고 막고 가두어서 병 모양에 맞출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폭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듭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억압과 동시에 정신의 역동적인 반항이 자라난다. 정신은 억눌리고 짓눌릴수록 폭발물로 변한다. 모든 억압은 언젠가는 폭동을 분출시킨다. 인류의 도덕적인 자주성은 지속적으로 - 영원한 위안이다! -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종교, 단 하나의 철학, 단 하나의 세계관이 독재적으로 자리 잡아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신은 언제나 모든 억압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정해진 틀에 따라 생각하는 것, 천박하고 기력 없게 만드는 것, 모두 똑같이 작게 획일화하려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신적인 다양성을 단 하나의 분모로 통합하려는 모든 노력은 얼마나 진부하며 헛된 일인가! 주먹의 논리로 쟁취한 원칙에 따라서 인류를 선과 악, 경건한 자와 이단자, 국가에 충성하는 자와 배신자로 단순하게 흑백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독립적인 정신들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유린하는 세력에 맞서서 항거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양심에 따른 반대자들 conscientious objectors', 즉 양심을 강압하는 일에 확고히 맞서는 자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몇 명의 개인이 이러한 대중유린에서 벗어나 유일한 진리의 폭력적인 편집광에 맞서 개인적 신념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할 만큼, 한 시대가 완전히 야만적으로 되고 하나의 폭력정치가 완벽하게 체계화된 적은 역사상 없었다.

16세기도 우리 세기처럼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과열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자유롭고 유린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 시절 인문주의자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폭력에 의해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에 대한 그들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독단론자들이 시장판의 장사꾼처럼 어리석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크게 역겨워하고 있음을 감동적으로 함께 느낄 수 있다. 독단론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인 참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역사는 정당할 때가 없다. 역사는 냉정한 연대기 기록자로서 결과만을 헤아릴 뿐, 도덕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역사는 오직 승리자만을 응시하며 패배자들은 어둠 속에 남겨둔다. 이 '이름 없는 용사들'은 거대한 망각의 구덩이 속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던져 있다. 십자가도 없고 화환도 없다. 희생의 행위가 헛되이 끝나고 말았기에 십자가도 화환도 이 잊혀진 자들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순수한 마음에서 감행되었던 어떤 노력도 헛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승리'와 '패배'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 때문에 언제나 승리자들의 기념비만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서, 수백만의 존재를 망가뜨리고 그 무덤 위에 자신들의 허망한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 인류의 진짜 영웅이 아니라, 폭력을 쓰지 않고 폭력을 당한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